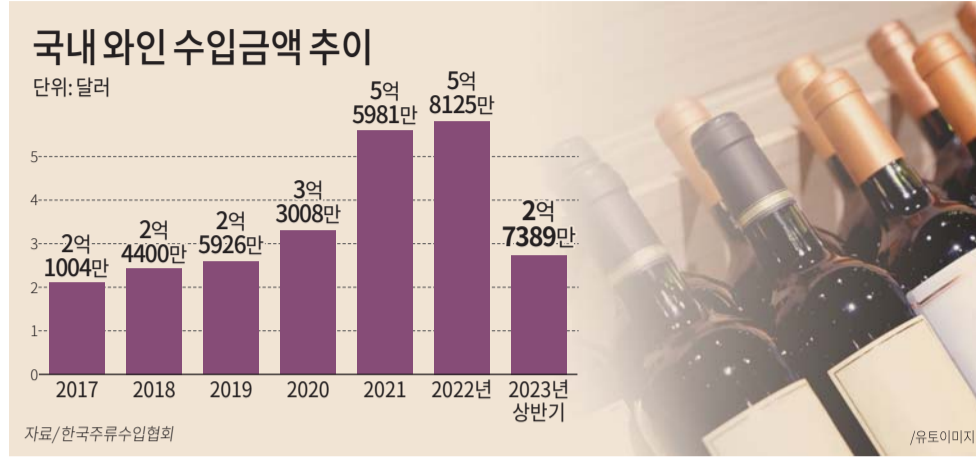


올 상반기, 와인 덜 마셨다... 성숙기 vs 침체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요즘엔 '하이볼'... MZ세대 하이볼 열광
#. 위스키 런...히비키부터 발베니까지 대란
올해 '술' 트렌드라는데 어딜 봐도 와인 얘기는 없다. 뉴스에서 와인을 찾으면 나오는 것이라곤 쌓인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 뿐이다. 와인의 전성시대는 정말 팬데믹과 함께 가버린 걸까.
우선 통계수치부터 확인해보자.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와인 수입 규모는 2억7389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9% 감소한 수준이다. 물량 기준으로도 상반기 수입된 와인은 3130만리터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었다.
성장률로 보면 기세는 크게 꺾였다.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은 3.8%에 그쳤다. 물량은 이미 작년에 꺾이기 시작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올해 연간 기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수치를 봤으면 다음 단계는 해석이다. 성장세가 꺾였다고 침체기로 봐야하는지 말이다.
2015년 이후 팬데믹 이전까지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연간 2억달러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반기만 2억달러를 넘어섰다.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연간 수입량과도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지 않는다고 침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무리가 있단 얘기가.
원화로 환산한 수입규모는 약 3600억원이다.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와인 시장은 반기 기준으로도 이미 1조원대가 넘는 시장이 됐다.
오히려 그간의 성장세가 너무 가팔랐다. 사실 팬데믹이라는 특수 요인이 사라진 이후로도 와인 시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만약 2019년 이후 연간 10%대의 성장을 꾸준히 했다고 가정해도 올해만큼 규모가 크진 않다.
다만 와인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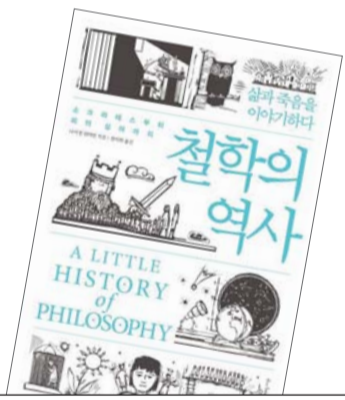
일리는 있다. 와인을 수입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도 말이다.
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주류수출입 면허를 새로 받은 곳만 300여곳이 넘는다. 와인 열풍이 불면서 신규 진입업체들 상당수가 수입주류 중에서도 와인을 수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 상태다.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된 신규 업체들의 경우 떠안고 있는 재고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와인 소비층이 제한적이라보니 신규 소비자의 유입도 더뎠다. 올 상반기 남은 와인 가격도 약해졌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와인 업계에도 불어닥쳤고,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널뛰기를 하는 환율도 부담이다.
전체 수입 주류 시장을 놓고 보면 최근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됐다. 품질대란을 빚은 위스키를 비롯해 럼과 진, 보드카까지 일제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규모는 1억3329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물량 기준으로는 1688만리터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50.9%나 증가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삶의 문제 해결할 지혜 갖고 싶다면

지인 중 하나가 그림책 작가가 되는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한 달 내내 철학 강의를 듣고 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스승은 예술에 철학이 담겨야 뛰어난 작품이 된다는 가르침을 전수했다고. 대체 철학이 뭐길래, 철학하는 사람, 즉 철학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philosopher'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참이라고 정의한 개념이 아니다. 끝없는 논쟁과 추론,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도출해 내야 하는 '세상의 이치'다.
철학자들은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기 위해 실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몰두한다. 철학이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철학의 역사'는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픽테토스, 아우구스티누스, 프리드리히 니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피터 싱어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철학자들이 골몰한 화두를 소개한다.
책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심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다. 고뇌 끝에 그가 내린 답은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이었다. 행복을 좇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직장을 때려치우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 매일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즐기는 것, 하루종일 늘어지게 잠만 자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에 절여 사는 게 최고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행복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 타인들에게 벌어진 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



철학의 역사
나이절 워버턴 지음/정미화 옮김/소소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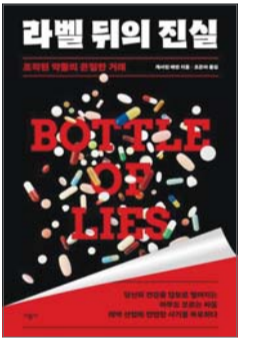
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올바른 성품을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덕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은 '마음의 통제'에 집중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상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다. 감정을 날려치듯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스토아학파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선택의 문제라고 여겼다. 노예 출신에서 황제의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는 육체는 노예가 돼도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인간으로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전수하는 책.
340쪽. 2만1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라벨 뒤의 진실

캐서린 에반 지음/조은아 옮김/시공사

몸에 탈이 난 사람들은 의사의 말만 믿고 그가 처방한 약들을 매일 한 움큼씩 삼킨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은 약들은 진짜 우리 몸을 위한 것이었을까. '라벨 뒤의 진실'은 세계적인 제약 회사와 미국 보건복지부, 미국 식품의약국이 결탁해 저지른 위법 행위를 낱알이 들춰낸다. 저자는 실험실 테스트 기록을 일성적으로 조작하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제조업체, 값싼 불순물이 함유된 약물을 기부한 제약 회사들을 고발한다. 캐서린 에반은 약병에 붙은 라벨과 전혀 다른 약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세계 최고의 공중보건 혁신이 어떻게 가장 놀라운 사기극이 됐는지 까발린다. 512쪽. 2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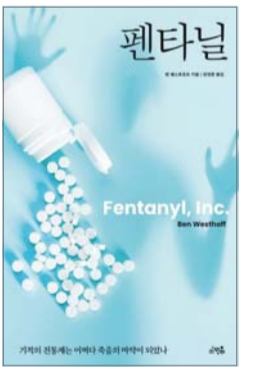


펜타닐

벤 웨스트호프 지음/장정문 옮김/소우주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에는 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독자가 넘쳐난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마약 거리로, 경찰의 단속조차 불가능하다. 허리를 굽히고 팔을 늘어뜨린 채 거리를 배회하는 중독자들로 인해 '좀비랜드'라고 불린다.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7만명에서 2021년 10만7000여명으로 약 53% 폭증했다. 이

중 대부분이 펜타닐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 말기 암 환자 등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펜타닐은 어쩌다 불법 마약으로 전락했을까. 책은 미중 간의 갈등, 멕시코 카르텔의 개입, 다크 웹을 통한 은밀한 거래, 제약회사의 탐욕, 효과적인 마약 정책 부재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펜타닐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분석한다.
444쪽. 2만원.



어른의 말글 감각

김경집 지음/김영사

보고 듣고 읽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 빨리 감각과 건너뛰기, 요약본이 없으면 답답해 숨이 턱턱 막힌다. 2배속으로 빨리 보면 생각하는 힘이 곱절로 강해질까. '어른의 말글 감각'은 언어의 속도를 조절해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고 콘텐츠를 이끌어내는 '언어만지기'를 소개하는 책이다. 언어 만지기는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해 말

과 글을 입체적으로 알고 느끼고 반응하는 일을 의미한다. 저자는 시, 속담, 에세이 등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언어를 흔들고 말고 맛보다 보면 관을 뒤집을 새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언어를 만지는 일은 결국 말과 글뿐 아니라 삶까지 만지고 돌아보는 일이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296쪽. 1만68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남아공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서 화재...최소 63명 사망 /사진 뉴시스
▲日記시, 도쿄 수산시장서 “중수입 규제 철폐 압박”

▲트럼프 후보 자격 둘러싼 헌법 논란 가열
▲“美, 대만서 190km 떨어진 필리핀 섬 항구개발 논의 중”



▲북러 무기협상에 유엔서 뭉친 한미일...“안보리 결의안 위반”
▲EU 외교수장 “우크라이나 1만명 추가 훈련-28조원 기금 조성” 제안 /사진 뉴시스